

살아나는 ‘천년역사’ 떠오르는 ‘관광나주’



역사유적 관광상품 만들기 박차

나주읍성 복망문 내년까지 복원
나주목 관아·향교 대대적 정비
잠사공장 문화예술공간 재탄생

나주시가 ‘나주읍성 4대문(門) 복원사업’ 등 역사유적을 활용한 관광상품 만들기에 나섰다. 나주에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가 조성돼 외지인의 유입이 늘고, 덩달아 관광객도 증가해 다양한 관광지를 개발하고 있다.

◇나주읍성 복원=나주시는 내년까지 복망문을 복원한다. 나주읍성(사적 제337호)의 축조 연도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고려시대 현종 원년(1010) 거란의 침입시 나주에 10여 일간 머물다가 환도한 기록 등을 토대로 당시 나주읍성이 있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성벽은 남아있지 않고 서벽과 북벽에 석축 일부와 흩어져 있는 성돌 뿐이다.

나주시는 1993년 남교문을 시작으로 4대문 중 북망문을 제외한 동점문, 서성문을 복원했다.

사업비 80억원을 투입하는 북망문 복원사업은 현재 북망문 주변 민가 지장물 12동 중 9동을 철거했고, 북망문 및 성문터 1차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서성벽 문화재구역 35필지 3277㎡를 매입하고 민가 지장물 25동 중 24동을 철거했다.

시는 연내에 실시할 계획인 용역을 마치고 민가 3동을 철거 완료한 후 내년 상반기 2차 발굴과 함께 복원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 도심 관문 환경개선으로 나주읍성 동성벽 및 동수구 복원과 ‘천년의 문’ 등을 건립할 계획이다. 동성벽, 서성벽의 성벽구간도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복원한다.

◇나주목 관아와 향교도 정비=나주목 관아와 향교도 손본다.

최근 나주시와 경북 상주시는 내년부터 향후 10년간 1000억원을 들여 양 지역의 ‘조선감영’을 복원하기로 했다. 지난 11월 4일 동서화합포럼 주최로 국회 의사당에서 열



복원된 서성문과 일부 남아있는 성벽.



정비중인 나주향교.



금성관 옆으로 나주목 관아 발굴공사가 진행중이다.

린 ‘동서화합포럼 전남·경북 현안 간담회’에서 이낙연 전남지사와 김관용 경북지사는 1000억원 규모의 조선감영 역사고도(古都) 관광자원화 사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동서화합포럼에 참석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에

▲나주읍성(사적 제337호)의 4대문 가운데 하나인 동점문. 나주시는 지난 1993년부터 ‘나주읍성 4대문(門) 복원사업’을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산배정 등 최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다. 이 사업은 2015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사업비 1000억원을 투입해 조선감영 및 목(牧), 향교와 산성 복원, 전통한옥 단지 및 역사문화 거리를 조성하게 된다.

나주시는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관련 용역을 추진하고 있으며 관아복원을 위해 90%의 부지를 매입했다.

◇옛 나주 잠사공장 문화공간으로=근대 문화 유적도 관광상품으로 탈바꿈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폐산업시설 문화자원화 사업’에 잠사(蠶絲)공장이 선정돼 문화예술활동 공간으로 재탄생하게 됐다.

나주시는 현재 건조시설과 창고, 고지보관소와 굴뚝이 남아 있는 나주잠사 건물 6동을 총 사업비 49억여원(국비와 시비 각 50%)을 들여 2015년 6월까지 리모델링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교육·프로젝트 공간, 공동체 공간, 전시 공간을 마련한다. 또 교육연구 프로그램, 예술·비즈니스 프로젝트 등을 운영하고 휴먼웨어 부문에 문화기획과 전문예술 인력 등을 육성하게 된다.

한편 지난 1910년 일본인이 설립한 나주 잠사공장은 한때 1000명이 넘는 근로자가 일을 했으나 1973년 이후 규모가 축소되기 시작하면서 결국 문을 닫았다.

이 밖에 나주읍성 지구를 포함한 3개 개발촉진지구가 국토교통부의 중앙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돼 국비 374억원이 기반시설 사업비로 투입될 예정이다.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2021년까지 다도면 등 2개 면과 산정동 등 8개 동 3개 지구 8.5㎢(시 전체면적의 1.41%)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승인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혁신도시 조성에 따른 일부 원도심 공동화로 시름에 빠져 있는 원도심 내 주민에게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클·사진 송영철기자 yacson@

“가축분뇨처리공장 건립, 민원 해소 먼저”

강인규 나주시장 입장 밝혀
갈등 해결 실마리 찾을지 관심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 일대에 추진중인 가축분뇨 처리공장<광주일보 11월 27일 11면 보도>이 지역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두고 주민간 찬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인규 나주시장이 사업자와 주민들의 대화를 촉구하며 직접 선을 긋고 나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강인규시장은 지난달 17일부터 시청 앞에 천막을 치고 사업 종단을 요구하며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주민들을 최근 만나 대화에 나섰다.

강시장은 이 자리에서 “사업자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취소돼 사업비 90억원 가운데 40억원은 국고로 반납해야 한다”며 “사업비를 살리고 주민들의 의사도 존중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면서 ‘주민들의 민

원을 해소한 뒤 사업에 착수한다’는 단서를 달아,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업자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건축허가 취소도 적극 검토하겠다” 강경한 입장을 피력했다.

이어 “그동안 주민들과 대화하고 법률자문도 받으며 해법을 찾기에 노력했지만 사업자 명의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보조금 교부결정을 해야 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시한 준수의 불가피성을 설명하면서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절충 기회가 있는 만큼 주민과 사업자 모두가 타협을 통해 상생발전의 지혜를 찾아야 한다”고 주민과 사업자간 대화를 촉구했다.

한편 나주축협과 공산농협, 동성 축산영농법인은 최근 나주시 왕곡면 신포리 일원에서 분뇨처리공장 착공식을 가졌다. 해양투기금지조치로 인해 가축농가에서 배출되는 분뇨 등 재처리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이다. /나주=정철현기자 chung@

나주박물관-도교육청 청소년 역사교육 강화 업무협약



국립나주박물관(관장 박종환)과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지난 8일 나주 박물관에서 청소년 역사교육 강화와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양 기관은 도내 청소년들의 역사교육을 강화하고, 문화감수성 함양을 위해 상호 협력기로 했다.

여성 의용소방대 임선자 대장 재난구호 공로 대통령 표창

나주소방서(서장 박용기) 다시면 여성 의용소방대 임선자 대장이 최근 지역안전 및 각종 재난구호 활동에 앞장선 공로를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임 대장은 화재진압활동 및 화재예방 캠페인을 비롯해 의용소방대 운영활동화 추진, 소방안전교육 및 각종 소방홍보, 독거노인 및 지역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태풍 피해지역 복구활동 등 소방공무원의 든든한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수행했다.



표창을 수상한 임선자 대장은 “지역사회의 안전 지킴이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하라는 의미로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나주소방서 모든 의용소방대원들과 함께 맡은 임무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주=송영철기자 yacson@

나주 혁신산업단지 분양개시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최고의 접근성, 기업투자 최적지!

합리적인
분양가

+

편리한
교통망

+

차별화된
인센티브

+

경영시너지
산업네트워크

=

나주
혁신산업단지

분양문의

(061)336-9916

나주시

나주혁신산업단지(주)

전라남도 나주시 시청길 22 (송월동)
TEL : 061)339-8326~27 / FAX : 061)339-2804

전라남도 나주시 왕곡면 혁신중앙길 49 (혁신리 581-42)
TEL : 061)336-9916 / FAX : 061)336-9917

분양문의

(061)336-9916